

직장인들 추석 휴무 평균 4일

5일 휴가 보장되나 실제로는 짧아... 10명중 6명 귀향 계획

올해 추석연휴는 주말을 포함하면 5일의 연휴가 보장되지만, 실제로 직장인들은 이보다 짧은 4일 가량을 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추석 휴무일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4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5일(52.0%), 3일(17.3%), 4일(7.1%), 2일(5.6%), 6일(3.5%), 1일(2.9%) 등의 순이었으며, 쉴 수 없다는 응답은 6.2%였다.

제직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재직자들의 평균 휴무일수는 5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평균 4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석연휴 기간에 귀향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62.7%가 '있다'라고 밝혔다.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이 74.8%로 '미혼'(57.2%) 직장인보다

귀성하겠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66.2%)이 여성'(56.4%)보다 많았다.

귀성은 연휴 첫날인 '9월 14일'(42.5%)에 집중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휴 전날인 '9월 13일'(27.7%), 추석 당일인 '9월 15일'(19.5%), '9월 9일 이전'(4.1%) 등의 답변 순이었다.

귀성 시 추석 당일인 '9월 15일'(25.7%)에 가장 많을 것으로 집계되었다. 계속해서 '9월 16일'(23.1%), '9월 18일'(20%), '9월 17일'(18.7%), '9월 14일'(3.8%) 등으로 이어졌다.

귀성 시 이용할 교통편으로는 단연 '승용차'(71%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고속버스'(15.5%), '기차'(8.7%), '지하철'(4.6%), '비행기'(0.8%) 등이 있었다.

귀성을 하려는 이유로는 '자식으로 서 당연한 도리여서'(53.6%), '복수응

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뒤이어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50.9%), '제사 성묘에 참석해야 해서'(33.9%), '고향 친구들을 보기 위해서'(9.4%), '어른들의 강압에 의해서'(8.2%) 등의 응답이 있었다.

반면 귀성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375명)들은 그 이유로 '그냥 편하게 쉬고 싶어서'(33.9% 복수응답), '여행 등 다른 계획이 있어서'(14.7%),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12.3%), '출근해야 해서'(11.7%), '교통이 혼잡해서'(11.7%), '지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9.9%) 등을 들었다.

귀성 대신 계획으로는 '짧은 이상인 57.3%(복수응답)가 '집에서 휴식'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여가 및 문화생활'(37.1%), '친구, 지인과 만남'(27.5%), '여행'(21.1%), '업무'(10.9%), '이직 준비'(10.7%) 등을 선택했다. /신광영 기자

이스타항공, 부산국제관광전 참가

항공편 상담·방문고객 편도할인운임 추가할인코드 제공

이스타항공이 9~12일 4일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 19회 부산국제관광전에 참가한다.

올해 19회 짝을 맞는 부산국제관광전은 국내외 40여개국의 지자체, 250여개 관광업계 등에서 참여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관광 및 문화 정보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행사다. 부산규모만도 430여개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부산-제주/오사카/방콕 노선을 신규 취항한 이스타항공은 부산 지역 홍보를 위해 2년 연속 부산국제관광전 참가에 일반 이용객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홍보부스를 통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스타항공 부산에서는 행사기간 동안 항공편 안내 및 상담과 함께 방문고객에게는 편도 할인운임에서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코드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해당 할인코드의 항공편 탑승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의 항공편이며 부산-제주 노선은

3,000원, 부산-방콕 5,000원, 부산-오사카 노선 10,000원이 각각 할인 가능하다.

또한 이스타항공 취항지 부산 도장을 모아오는 패스포트 스탬프 릴레이 행사(50명 한정) 및 SNS포토존 이벤트를 통해 여행캐리어, 모험항공기, 스낵백 등 푸짐한 상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예코백이 제공된다.

부스를 방문하는 여행사를 위한 명함추첨 행사와 특별 행사인 B2B 트래블마트에서는 추첨을 통해 이스타항공 국제선 왕복항공권, USB 기념품 등을 증정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번 부산 국제관광전 참여를 통해 고객들에게 이스타항공의 부산 지역 취항 및 이스타항공의 다양한 운임과 서비스를 홍보하고자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B2B 트래블마트를 통해서도 고객들에게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정읍농어촌공공, 봉사활동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정동환)는 지난 9월 다가오는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우리 주변의 소외 계층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장애인의 집을 찾아서 위문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위문활동은 정읍시 상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 나눔의 집(센터장 박춘아)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고 사회복지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정동환 지사장은 "명절이 되면 더욱 소외되기 쉬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모두가 행복하고 풍성한 명절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지사는 이번엔 이웃사랑 실천과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정읍시 태인면 고천리 이육립씨의 4가구를 방문하여 위문 및 집 주변정소, 전기, 수도를 점검하는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JB Card와 함께하는 리더스포럼' 행사는 카이스트 정재승 박사의 수준 높은 강연 참여와 고객 상호간에 교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전북은행 'JB Card와 함께하는 리더스포럼' 성료

우수고객 50명 대상으로 카이스트 정재승 박사 강연 등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8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 웨딩에서 제4회 'JB Card와 함께하는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카이스트 정재승 박사의 수준 높은 강연과 고객 상호간에 교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 박사는 "창의적인 리더를 위한

신경과학'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강연을 펼쳤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성공하는 CEO가 되기 위해 조직내부에서 적용해야 할 창의적 경영법에 대해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참석자들이 강연을 듣고 궁금한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강연자가 응답하며 상호간에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리더가 키워야 할 다양한 분야의 주제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리지역 리더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내 중기 지원사업내용 공고

전북테크노파크, 통합해서

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백두옥)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북도가 약 30억 원 규모로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대표산업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내용을 통합공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업들의 편의성 제고와 효과적인 사업 안내를 위해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등 수행기관의 지원사업 내용을 통합해 공고한다.

산업분야별로 기업 역량강화, 사업화, 기술 분야다. /신광영 기자

신청지역은 전북지역 내에 소재한 주력산업에 해당하는 전·후방 연관 제품 제조기업(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기준)이다.

사업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재)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tx.or.kr>), 전북기업지원 컨택센터(<http://www.jc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테크노파크 백두옥 원장은 "이번 전북지역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안정적인 기업운영과 매출성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농협-닭고기자조금, '구구데이' 맞이 소비촉진 행사

전북농협(본부장 강태호)은 지난 9일 구구데이를 맞아 닭고기자조금 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전주시 한옥마을 인근 풍남문 광장에서 닭고기·계란 시식행사를 가졌다.

'구구데이'는 닭을 부를 때 '구구'하고 부르면 닭이 착안 2008년부터 '모두 불러 모아 닭고기'와 '계란을 먹는 날'로 정했다.

이날 두 기관은 튀김 닭과 구운 계란을 준비해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과 시민에게 시식으로 제공하고, 닭고기와 계란의 우수성을 담

은 진단지도 배부하며 구구데이의 의미를 홍보했다.

또 전북농협은 시식행사와 별도로 김제시와 군산시의 복지시설을 방문, 생닭 200마리를 증정하며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다.

전북농협 김형만 부본부장은 "닭고기와 계란은 고단백질, 저지방, 저칼로리, 저콜레스테롤이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식품이다"며 "닭고기와 계란 등 우리 축산물을 더욱 애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편의점, 1인가구 도시락 판매경쟁

1~2인 가구의 증가로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귀성을 하지 않고 나홀로 추석을 보내는 이들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편의점들은 명절 도시락을 내놓고 본격적인 경쟁에 나섰다. 매년 미귀성객들이 늘어나면서 혼자서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절 연휴기간에는 식당들이 문을 닫는 경우도 많아 도시락 수요도 높아진다.

실제 편의점 CJ가 최근 3년간 추석, 설 명절 연휴 기간 도시락 매출을 분석한 결과 연휴 3일(명절 당일 포함 ±1일)간 도시락 매출은 2013년 18.4%, 2014년 24.3%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45.0%의 신장률을 나타냈다.

CS25의 올해 설 연휴 명절도시락 매출 역시 지난해 설에 비해 47.6%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J는 귀성을 하지 않는 나홀로족을 위해 도시락, 주먹밥 등 한가위 간편식 3종을 출시했다.

전통 한정식 컨셉의 '궁중네비안기우이 도시락', 대표적인 명절음식 전(煎)을 메인 메뉴로 만든 '풍성한 전 도시락', 풍성한 오색전 밥바 등이다.

궁중네비안기우이 도시락은 숯불맛 네비안기우와 고소한 풍미의 잡채, 도라지, 고사리, 취나물 등 총 7가지 반찬으로 구성됐다. 풍성한 전 도시락은 호박전, 동그랑땡, 한입고추튀김과 함께 톨빵고기와 각종 나물 등을 정갈하게 담아 추석 분위기를 물씬 냈다. /뉴시스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